

국민과 함께하는

2025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리:스펙 제대군인 또 다른 출발

2025. 9. 30. (화) 10:00 ~ 17:00 aT센터 제1전시장



참여대상

제대(예정)군인, 보훈대상자, 취업 희망 국민
* 현역장병은 구직청원휴가 활용 참여가능

제대군인
정책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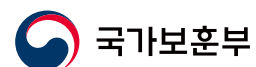
채용상담
및 면접

채용설명회

부대행사



문의 2025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운영사무국 (02-3431-1963, vnet@vnetjob.kr)



리:스펙 제대군인

2025 August Vol.234

리:스펙 제대군인

2025 August Vol.234

Re play

하늘 위에 다시 그리는 이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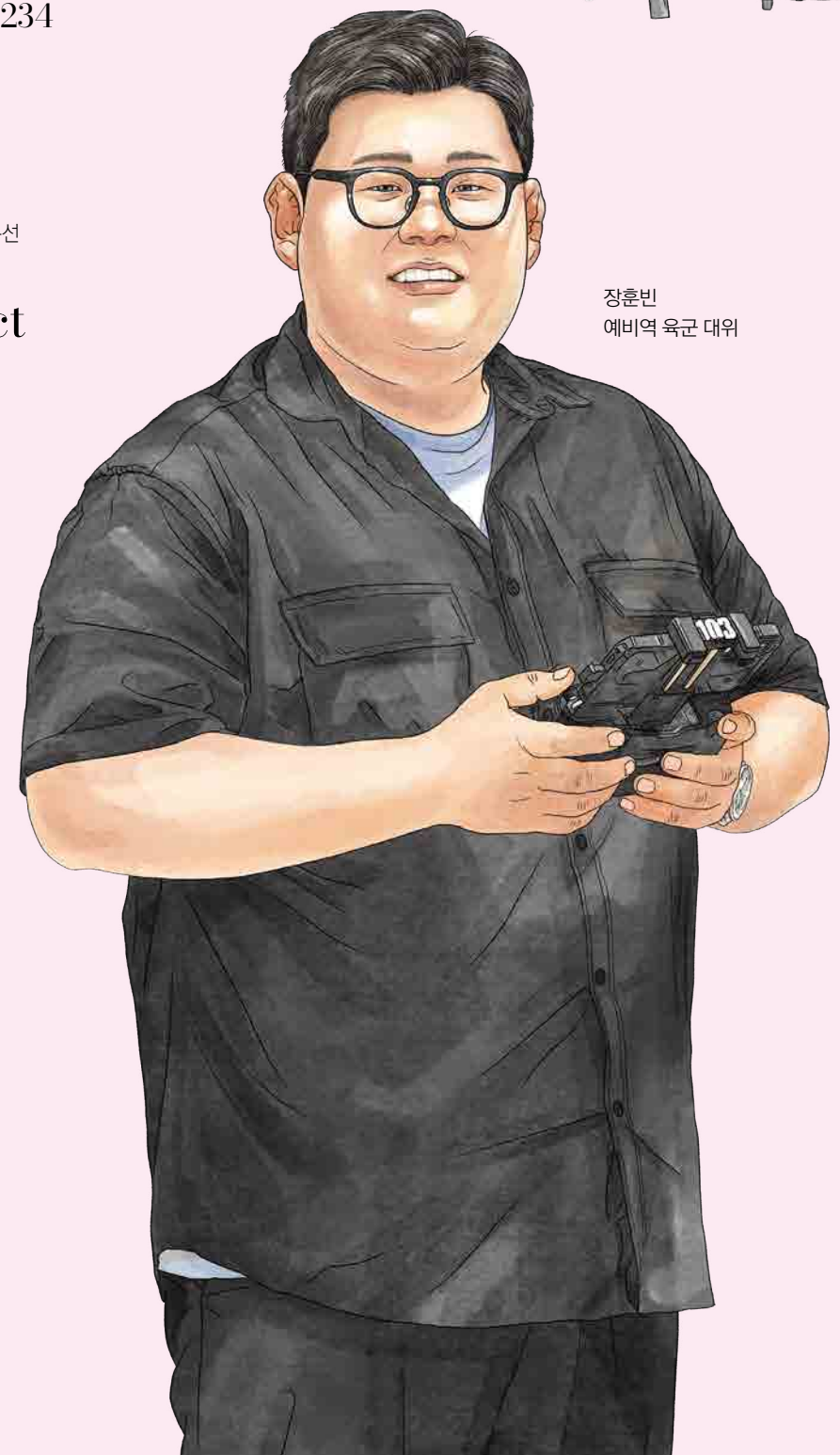
Re connect

내게 꼭 맞는 취업 지원,
어디까지 받아봤니?

Re new

빅테크의 시대
달라진 금융과 대응

장훈빈
예비역 육군 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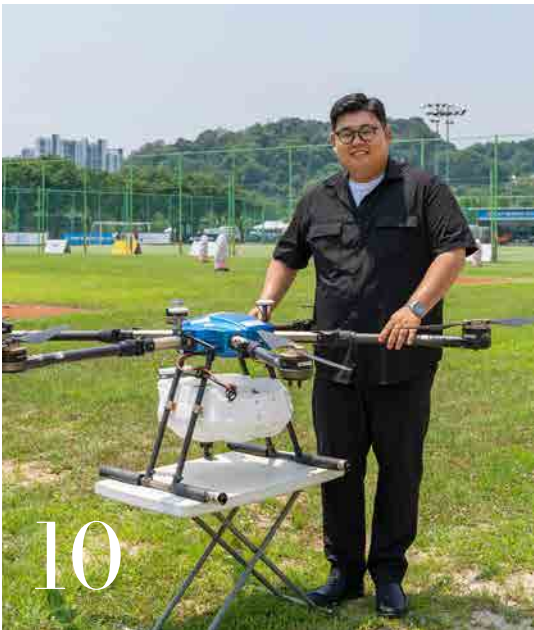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보훈



Contents



리:스펙
제대군인
2025 August Vol.234



08

Re play

- 04 **리마인드**
나에게 휴식은 []이다
- 06 **지금 우리는**
젊고 유연한 힘으로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도약하다
JS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10 **인사이드 스토리**
하늘 위에 다시 그리는 이륙선
장훈빈 예비역 육군 대위
- 14 **위대한 전환**
나는 대한민국 비상계획관이다
이상민 예비역 육군 대위

Re connect

- 18 **커리어 맵**
내게 꼭 맞는 취업 지원, 어디까지 받아봤니?
생애주기별 일자리 맞춤 지원제도 총정리
- 20 **스페셜 리스트**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일상에서 가치를 캐내다
지역을 브랜드로 바꾸는 사람들
- 24 **금빛 상담소**
스마트폰으로 남기는 여행 인생샷 비법
박지홍 포토그래퍼
- 26 **지식 산책**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일장기 말소 사건
- 28 **미디어 로그**
현장을 뒤집는 한 줄의 조항, 노동 문제 대리인
노무사 노무진

Re new

- 32 **전문가 칼럼**
빅테크의 시대 달라진 금융과 대응
이임복
- 34 **뜻있는 여정**
기억을 품은 길, 평화를 향한 발걸음
의정부·남양주 평화로드
- 38 **센터는 지금**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 42 **독자 광장**
책장을 넘기며 떠나는 마음의 여행
여름휴가 맛이 추천 도서 3선

통권 234호
발행일 2025년 8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권오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f
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

x.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휴식은 []이다

“휴식은 게으름과는 다르다.
여름날 나무 그늘 밑 풀밭 위에 누워 속삭이는 물소리를 듣거나
파란 하늘에 유유히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존 러벅의 <아주 오래된 지혜> 중에서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만,
나는 잠시 멈춰 서도 괜찮습니다.
매일 쌓이는 할 일들 사이에서,
끝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들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식은 나태함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마치 토양이 겨울을 견뎌야 봄에 새싹을 틔 수 있듯이 말이죠.

누군가에게 휴식은 책장을 넘기는 소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겐 비 내리는 창가의 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또 다른 이에게는 혼자만의 산책길이 진정한 휴식일 테죠.

휴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거창한 여행이나 값비싼 체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그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휴식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만의 소중한 싹표가 될 것입니다.

군 경험을
비탕으로
쌓아올린
신뢰의 건설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젊고 유연한 힘으로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도약하다 JS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JS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창립 4년 만에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하며 빠르게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육군 공병 장교 출신의 대표와 군 경험이 풍부한 기술 인력, 그리고 젊고 유연한 조직 문화가 이끄는 이 회사는 공공 분야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 영역까지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을 향한 이들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1인 기업에서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의 빠른 성장

조정식 대표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 육군 공병 장교로 복무하며 다양한 군 시설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한 실무형 장교였다. 이라크와 남수단 등 해외 파병 경험도 지닌 그는 제대 전부터 철저히 민간 진출을 준비해 왔고, 전역 후 건축사 및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다.

2년간 유사 업종에서 감리단장으로 일한 뒤, 2021년 6월 JS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설립했다. 당시에는 1인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매년 두 배 이상 성장하는 가파른 궤적을 그리며 2023년 1월 법인 전환을 통해 체계적인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발전했다.

창업 초기 주력 분야는 건축설계였으나, 이후 CM(건설사업관리)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방부 발주사업을 연이어 수주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1차 사업이 있으며, 군 출신 기술진으로 구성된 JS엔지니어링은 사용자(군)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설계와 감리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젊음'과 '군 경험'이 만드는 차별화된 경쟁력

JS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람, 그중에서도 군에서 훈련된 실천력 있는 인재들이다. 현재 전체 직원 56명 중 약 70~80%가 제대군인으로, 특히 공병 출신을 비롯해 전기, 통신, 소방,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인력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한 30~40대 젊은 기술자들이 조직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수직적 구조 대신 팀 중심의 수평적 협업 문화를 정착시켰다. 빠른 의사결정, 민첩한 대응력, 강한 책임감은 조직이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JS엔지니어링은 현재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구조 등 건설 전 분야의 면허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내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이러한 폭넓은 인허가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 감리, CM, 안전진단까지 다방면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공공을 넘어 민간으로, 사업 영역 확장의 성과

JS엔지니어링은 국방부 사업을 발판 삼아 성장했지만, 현재는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발주처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철도, 전력 분야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내부 인프라와 인재 시스템의 혁신을 동시에 가져왔다. 기존의 업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건축사·기술사 등 고급 전문 인력을 꾸준히 영입하고 있으며, 군 조직에서 체득한 체계성과 민간 기업의 유연성을 결합한 독자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4년 '강원도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지며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급속한 성장 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고용을 실천하는 모범 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군에서 익힌 조직력과 책임감, 그리고 민간에서 발휘되는 유연한 창의성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JS엔지니어링. 이들의 성장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제대군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능성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합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JS엔지니어링이 써내려갈 성공 스토리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Re play 지금 우리는

I N T E R V I E W

“제대군인의 책임감, 우리 회사엔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조정식
대표이사

제대군인의 책임감, 체계적인 일 처리, 위기 대응 능력은 민간 기업에서도 매우 큰 자산입니다. 실제로 입사한 제대군인들은 성실성과 집중력으로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출신 인재 채용은 계속될 예정이며, 단순 고용을 넘어 사회 정착과 경력 개발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5년은 본사 확장과 면허 확대를 통해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자기주도형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제대군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와 제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단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까웠는데,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제대군인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군에서의 경험, 민간에서도 충분히 통합니다”

육군 공병장교로 21년간 지휘관 및 참모임무를 수행하면서, 조직관리, 공사관리 등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은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컨설팅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3월에 군에서 배우고 익힌 능력과 20여년 전 대표님과 인연으로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군에서의 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인사, 자금, 총무업무 등 조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지원본부장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무에 충실하고 동료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전역 이후의 삶도 충분히 멋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합니다. 두려워 말고 사회에 도전하세요!



송봉규
부사장, 운영지원본부장

“군에서의 경험,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자산이 됩니다”

2009년 현역병으로 입대해 2010년 부사관으로 임관, 육군 공병 병과에서 8년간 복무했습니다. 나라사랑보급자리사업 등에서 공사감독관으로 현장 실무를 경험했고, 2017년 전역했습니다. 전역 전 외국계 기업 취업을 목표로 영어를 준비했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어학 수강료 지원 덕분에 TOEFL 고득점을 달성해 해외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귀국 후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1월 JS엔지니어링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방부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군 시절 경험과 조직 이해도가 현장 소통과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의 인간관계, 위기 대응, 책임감은 지금도 중요한 역량입니다. 앞으로도 기술사 자격 취득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안전진단사업본부 과장

“군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큰 자산입니다”

육군 정보병과에서 정보 수집·분석, 작전 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2021년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며 관심 직무를 좁혀갔고, 실무에 필요한 한글·엑셀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올해 2월 JS엔지니어링에 입사해 운영지원본부에서 계약, 문서관리, 현장 지원 등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군 시절의 부대 운영 경험과 행정 업무 역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으며, 문서 처리 능력, 협업, 위기 대응력도 현재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후배 제대군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자신감을 잃지 말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군에서의 경험은 사회에서도 충분한 자산이 됩니다. 저 역시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



이대훈
운영지원본부 사원

하늘 위에 다시 그리는 이륙선

드론 수석교관으로 시작한 ‘두 번째 비행’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장훈빈
예비역 육군 대위



끊임없는 도전은 결국 새로운 길을 만든다. 장훈빈 예비역 육군 대위는 유도선수에서 군인의 길을 거쳐, 전역 후 드론 분야에서 인생 2막을 열었다. 철저한 준비와 확신으로 비상에 성공한 그는 지금 수많은 교육생의 비행을 돕는 교관이자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제복을 벗은 뒤에도 멈추지 않는 그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도 도복에서 군인의 군복으로

어린 시절 그는 단조로우면서도 질서 있는 삶을 살아왔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유도선수로 활동하며 하루 대부분을 학교와 훈련장에서 보내는 일상이었다. 특별한 추억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끈기와 인내심, 절제와 자기통제라는 귀한 자산을 체득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뜻하지 않은 어깨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중단하게 되면서 삶은 다시 갈림길에 놓였다.

“유도를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빠르게 방향을 바꿨다. ROTC 51기와 군장학생 시험에 모두 합격하며 군인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묵묵히 자신을 응원해 준 부모님 덕분이었다.

“음악 특기생인 누나와 체육 특기생이었던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제 삶을 밀어주는 원동력입니다.”



포병 장교로 책임을 배우다

2013년 그는 포병 소위로 임관하여 파주에 위치한 2기갑여단 포병대대에서 초임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관측장교, 전포대장, 사격지휘장교를 거쳐 포병 운용의 전반을 익혔고, 이후 6포병여단 9포병단에서 포대장으로 지휘 책임을 맡았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을 다루는 법, 정보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달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을 끝까지 지는 자세'를 배웠다.

“군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후보생 시절 수류탄 투척 훈련이었습니다. 폭우 속 야외에서 먹던 된장국 한 숟가락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숟가락을 수십 번 떠도 줄지 않던 그 국물처럼,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는 군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능력의 100% 이상을 발휘했고, 그때 땀 습관은 사회에 나와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며 열심히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6년 4개월의 군 생활은 그에게 리더십과 실무 감각을 길러주었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만들어주었다.



전역을 결심하고 나를 재설계하다

군복을 벗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그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섰다. '나는 과연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일까?'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취업, 결혼, 학위, 자격이라는 네 마리 토끼였다. 전역을 3개월 앞두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그는 가정과 커리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혼란 속에서 우선순위를 나눴습니다. 마인드맵을 수십 장 그리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를 분석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명확히 그릴 수 없었다. 자신에 대한 객관화, 특히 단점을 직시하는 데 오래 걸렸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기”를 잊지 않는다. 드론 분야를 선택하게 된 것도 그런 치열한 고민의 결과였다. 2017년 무인기 관련 법률 제정이라는 시점을 산업 초기로 판단하고, 정보 수집과 현장 방문, 취업 가능성 분석을 반복했다. 기술직, 그리고 유망직업이라는 두 가지 확고한 조건을 충족하자 드론 공부에 몰두했다.

드론이라는 새로운 하늘에 착륙하다

2022년부터 그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남양주시드론항공협회의 사무국장이자 드론항공센터 수석교관으로 근무 중이다. 드론 국가자격과정의 이론 수업, 실기 비행지도, 평가는 물론 국가자격증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협회는 드론항공센터, 드론방재단, 드론지원단, 드론스포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과 협약을 맺어 도발 상황 및 예비군 훈련을 지원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산불감시와 폐기물 순찰,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까지 사회적 역할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다.

특히 그는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의 멘토로 활약하며 드론에 관심 있는 제대군인들에게 차근차근 도움을 주고 있다. 자신이 겪었던 전역 후의 혼란과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드론학과 교수와 공직전환을 목표로 매일 늦은 밤까지 논문 작성과 자격증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 오는 8월에는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하는 기쁨도 누리게 됐다.

“제복을 벗은 순간부터 진짜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더 높고 더 멀리 비상할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유도선수에서 군인으로, 그리고 드론 전문가로 그의 인생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드론처럼 때로는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높이 상승하며 자신만의 비행경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조언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돈다. 🛩



장훈빈 예비역 대위의 인생 철칙

1. 선택의 순간, 최선을 택하라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 대신, 그 순간의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자.

2.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실패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고, 그것이 곧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3. 경쟁력은 스스로 만드는 것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학력, 경력, 자격,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성장하라.



나는 대한민국 비상계획관이다!

2024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후기 공모전
장려상

이상민

예비역 육군 대위



무기력한 날갯짓

2015년 6월 30일 전역을 앞둔 육군 대위. 내 나이 29세. 소위로 임관하여 군대에서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오르고 싶었으나 하늘은 생각보다 높았으며 날갯짓이 느려 날 수가 없었다. 누구의 탓도 아닌 내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어 생긴 일로 군복은 나랑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생각하고 내려놓게 되었다. 꽃다운 20대를 군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다년간 회식으로 술에 절어 지방간과 니코틴으로 찌든 폐. 이따금 실시한 전투체육 덕분에 지금까지 숨 쉬고 있는 건 아닐까? 전역할 날을 앞두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독신자 숙소 안에서 숨이 턱턱 막혀오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집에서 전역하는 줄도 모르고 있을 부모님의 근심 깊은 얼굴이 떠오르며 하루하루 괴로운 날들이 지나갔다. 각종 수험서는 많이 구매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각종 핑계를 대며 보지 않았고, 주변 동료의 꿈에 솔로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나가서 밥벌이하고 살 수 있을까? 하~’ 늘어가는 건 한숨과 후회뿐.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집중해 보자고 다짐하지만 쉽지 않다. ‘전역하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일할 자리 없겠어?’라는 막연한 생각은 역시나 큰 오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그리고 밖은 시베리아의 강추위만큼 싸늘했다.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점점 피부로 와닿는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할까?

부대로 공문 하나가 접수되었다. 전역 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KB에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 행사가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 상금한 충격을 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였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물론 나처럼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행사의 프로그램은 알차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나 나에게서는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이번에는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중·장기 복무자들 전직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에 참가하였다. 내 코가 석 자라 할 수 있는 건 모

두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과 조별 토의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고 내 인생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평소 말주변이 없었던 나에게 모의 면접은 큰 힘이 되었다. 단단히 다져가는 나의 자기소개서에 자신감이 점점 불기 시작하여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 광탈. 하나는 붙었지만, 그마저도 인·적성검사에서 탈락. 내 인성이 그렇게 좋지 않나?

삼식이가 끈 1등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SNS를 보다가 소대장 때 중대장님으로 모셨던 분이 보여 오랜만에 인사나 드릴까 하고 연락하게 되었다.

“중대장님, 전역하고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전역했어? 축하한다. 취업은 했니?”

“아직이요... 뭐... 이거저거 알아보고는 있는데... 쉽지 않네요”

중대장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생각해 둔 거는 있고? 혹시 비상계획관이라고 들어봤니?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때? 내가 지금 0000에서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역장교가 도전하기 아주 좋아! 내가 수업 때 들었던 자료랑 교수님 소개해 줄게.”

중대장님의 따뜻한 목소리는 하느님의 말씀처럼 들렸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중대장님에게 감사하며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 도전해 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다시 의자에 앉으려니 좀이 쑤셨지만, 엉덩이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오래 앉아서 공부했다. 처음에는 ‘버텼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다. 비상계획관 강의는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있었기에 대구에서 새벽 첫차에 몸을 실었다. 입김이 새하얗게 뿜어져 나올 정도로 찬 새벽 공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태함과 안일함을 치료해 주는 극약처방 같았고 합격하는 데 있어서 더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게 해주었다. 문득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보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경쟁자면서도 동병상련의 감정이 드는 마치 전우 같은 느낌이었을까. 복잡미묘한 감정이 교차하면서 다시 대구로 내려오는 기차에 올랐다. 새벽에 집에서 출발해서 밤이 되어 집에

도착하니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볼 시간이 없다. 하늘은 계속 깜깜했고 내 미래일 것 같아 불안하고 무서웠다. 하지만 집에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만 믿고 계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 깜깜한 밤하늘에 휘영청한 달과 북극성을 찾으며 위안 삼는다.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 열람실이 열릴 때부터 닫힐 때까지 앉아있었고, 돈도 벌지 않았기에 밥 사 먹는 돈도 아까워 삼식이처럼 끼니때마다 집에서 밥을 먹었다. 몸은 점점 지쳐가고 힘들었지만, 지금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반드시 1등으로 합격하여 부모님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재도전에 이은 뜻밖의 합격

드디어 시험날. 두근두근. 수험표를 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내 몸이 왜 이렇게 달달 떨릴까? 긴장하지 않고 공부한 대로만 하자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대로면 그냥 떨어질 거 같은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더니 현실로 다가왔고 눈물을 흘리며 쓰디쓴 고배를 마셨다. 시험 기회가 3번밖에 없었기에 더욱 초조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었다. 모든 건 내 탓. 진짜 독해져야겠다. 술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했던 나를 더 고립시켰으며 내 머릿속에 오직 ‘합격’ 하나만을 생각했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또다시 돌아온 시험날, 처음 시험보다 덜 떨리긴 했지만 ‘기회는 이번뿐’ 다음은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시험을 쳤다. 이쉽게도 합격자 명단에는 나의 수험번호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다시 또 1년의 기다림. 긴 터널을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하고 있었지만 무너진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 아버지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 일을 배워 새롭게 인생의 2막을 열어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무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추가합격 소식에 어안이 빙빙해졌다. 이내 정신을 차렸고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솟구쳤다. 근무지가 대구라서 더 기뻐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하느님께 기도드린 것을 이제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근무지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이걸 진짜 하느님이 주신 기회구나.' 누구보다 나의 힘들었던 수험생활을 옆에서 지켜보신 부모님께 바로 알리고 싶었으나,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합격 소식을 알리기로 했다.

비상계획관으로서 그리는 그림

2016년 8월 1일. 첫 출근. 분주하다.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꽃단장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어머니께서 노크하신다. 똑똑. 말없이 들어온 어머니는 고생했다며 나를 따뜻하게 안아 주신다. 전역하기로 마음먹었던 그때부터 수험생활했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을 비비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어머니는 내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이 소원이었다며 웃을 다리는 것에 마냥 행복해하셨다. 어머니가 행복해하시니 나 또한 행복했다.

입사 후에 비상계획관이라는 이런 생소한 직책에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했다. 또 한편으로는 낙하산이라는 소문까지 들렸다.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했는데 낙하산 소리를 들으니 너무 속상했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총무계획부터 수립하였고,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수많은 고민을 했다. 입사 후 경주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지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진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진 대피훈련까지 시행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행동화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평상시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복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도 나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비상계획관으로서 환자 및 내원객과 교직원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나왔던 과거를 회상하며 글을 적고 있어 현재는 환하게 웃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소도 지을 수 없었다. 현재는 과거의 거울이며 과거 없이는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전역 예정 장병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최근 책에서 '향상심'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향상심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향상심을 가지고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제대군인 여러분 모두 아자! 모든 비상계획관들 아자! 아자! ㄹ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

학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내일을 지원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고교 취학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조기 사회정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현역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자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학·복학에 한함	입학금, 수업료 50%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	- 생활수준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 고등학교 취학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절차



유의 사항

- ✓ **제대군인 본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만 해당(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기관 제외)
- ✓ **제대군인 자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만 해당
- ✓ **교육지원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감면·지원 대상자는 지원 제한**



문의 및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꼭 맞는 취업 지원, 어디까지 받아봤니?

생애주기별 일자리 맞춤 지원제도 총정리

청년

AI 기반 역량진단을 앞세운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와 월 50만 원 참여수당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3·5년 만기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맞물려 구직 청년에게 ‘취업+재테크’ 청신호를 쏜다.



제도	핵심 지원 내용	지원금/혜택	비고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청년 특례)	직업훈련·일경험·복지연계·취업알선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부양가족 수당 추가	청년특례 기준: 소득 120%·재산 5억 이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AI ‘잡케어’ 역량 진단 → 1:1 컨설팅·훈련·채용연계	취업성공 인센티브 최대 300만 원	전국 4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1350)
청년도전 지원사업	5·15·25주 단계별 프로그램 이수	참여수당 월 50만 원 (최대 5개월) + 이수·취업 인센티브	구직단념 청년 대상
청년 특화 취업지원 (빈일자리 연계)	제조·조선 등 미충원 업종 + 역량강화훈련 → 채용·6개월 근속 시 지원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 (최대 12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세부액 지역별 상이)	2025년 시범 운영
청년내일채움공제 (3·5년형)	청년·기업·정부 공동 적립으로 목돈 마련	3년형 만기 2,000만 원·5년형 3,000만 원 + 이자·세액공제	만 15~34세 (군필자 → 39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이트 모음



고용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정부가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자. 청년의 도약, 중장년의 전환, 여성의 복귀까지 생애 단계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지금 바로 나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해 보자.

중장년

올해 첫 선을 보인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50대 이상에게 최대 3개월 일경험과 월 150만 원 수당을 제공하고, 전국 31곳 ‘중장년 내일센터’가 경력설계·훈련·매칭을 무료로 밀착 지원해 재취업 속도를 높인다.



제도	핵심 지원 내용	지원금/혜택	비고
중장년 경력지원제	1~3개월 직무교육 + 현장 일경험 → 재취업 매칭	참여수당 월 150만 원 (최대 3개월) 참여기업 운영수당 월 40만 원	중장년내일센터 방문 및 전화, 고용24 온라인 신청
중장년 내일센터	경력설계, 재취업 상담, 직업훈련·창업 연계 원-스톱 서비스	상담·훈련 전액 무료	전국 31개 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35~69세)	직업상담·알선·훈련비 + 취업활동 비용 지원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 원 ×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근속 기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24



여성(경력단절 등)

새일센터 신산업 직업교육(참여수당 월 10만 원)과 3개월 인턴 지원금 (기업 400만 원·인턴 60만 원)으로 경력단절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복귀를 돕는다.

제도	핵심 지원 내용	지원금/혜택	비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기술(AI·반도체·바이오) 직업교육 → 인턴·취업·사후관리	직업교육 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 최대 300만 원	전국 160여 곳
새일여성인턴사업	인턴 3개월 + 정규직 전환 지원	기업 400만 원 + 인턴 월 60만 원 (총 460만 원) 지원	6개월 고용 유지 시 추가 인센티브
여성 취업 지원금 (지자체)	재취업·창업 지원 + 기업 고용장려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300만 원 / 기업 고용장려금 최대 720만 원(지자체별 상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o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Tip 고용24에 연령·소득 입력 → 내게 맞는 지원 자동 추천 / 1350 콜센터·센터 방문으로 신청 절차 확인!

지역을 브랜드로

글 편집실



바꾸는 사람들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일상에서 가치를 캐낸다

지역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다.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를 새롭게 엮어 브랜드로 만들고, 사람과 경제를 연결하는 '창조적 창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과 콘텐츠의 운명적인 만남

'로컬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지역을 배경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을 뜻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를 콘텐츠로 발굴하고, 이를 경제와 문화의 흐름으로 연결시키는 창의적인 기획자이자 활동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콘텐츠산업 동향분석'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산업은 약 4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1인 창작자' 중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 콘텐츠 시장은 '로컬 감성'을 중심으로 한 공감형 콘텐츠가 확산되며 새로운 소비층을 만들고 있다.

창업 문턱이 낮은 것도 장점이다. 기존 사업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스마트폰과 노트북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 고용 불안과 높은 창업 장벽에 부딪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 청년들이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지역 농산물·관광지·전통문화와 연계해 브랜드화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로컬 콘텐츠, 브랜드로 완성되다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가 아니다. 지역의 자원과 감성을 콘텐츠로 구성하고, 이를 브랜드로 설계해 IP(지식재산권) 자산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영상 톤, 말투, 패키지, 굿즈까지 콘텐츠와 경험이 하나로 연결될 때, 로컬 콘텐츠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이 된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25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개편했다. 기존 사업화 지원 외에도 저작권 등록, 브랜드 영상 제작, 캐릭터 활용, 유통 연계 등 브랜딩 중심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단순 홍보를 넘는 '콘텐츠 IP화→브랜드화→글로벌 진출' 단계로 이어지는 구조다.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

빠르게 성장하는 로컬 콘텐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육성 사업', '스토리랩' 등을 통해 지역 창작자에게 멘토링, 기획 개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지역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25년부터는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연령 기준이 만 45세로 확대되고, 창업자금 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되며 로컬 콘텐츠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창업사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콘텐츠 창업 캠퍼스 등 창작 기반 인프라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유망한 콘텐츠 분야와 성공 전략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은 무엇보다 '자신만의 지역 콘텐츠'를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주목받는 분야로는 △지역 축제·음식·문화 소개 △로컬 브랜드와의 협업 △농특산물 스토리텔링 등이 있으며,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공을 위해 세 가지 전략을 강조한다.

첫째, **콘텐츠의 차별화**. 흔한 정보가 아닌, 자신만의 시선으로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둘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지자체, K-Startup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을 활용한다.

셋째, **디지털 네트워킹**. 온라인 커뮤니티, 로컬 크리에이터 워크숍 등을 통해 협업과 홍보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브랜딩 전략을 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포트폴리오와 사업계획서에는 창작자의 철학과 지역 자원의 연계, 그리고 브랜드화와 수익 모델에 대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지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생생한 이야기



충주 관아골의 기적, 이상창 대표의 '세상상회'

충북 충주 구도심 관아골에 청년 창업가 이상창 대표가 연 '세상상회'는 지역을 바꾼 디저트 카페다. 버려진 주택을 개조해 충주 복숭아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앞마당에서는 청년 셀러들과 '담장마켓'을 열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 마켓은 회당 2천 명이 방문할 만큼 성장했고, 공실률은 50%에서 12%로 감소했다. 이상창 대표는 '알바요정' 인턴을 키워내며 청년 창업을 이끄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관학교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성과는 대통령 표창으로 이어졌다.



감자밭에서 시작된 브랜드, 춘천 감자빵

강원도 춘천의 청년 창업 브랜드 '감자밭'은 지역 감자를 활용한 '감자빵'으로 전국적 인기를 얻었다.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SNS 마케팅, 캐릭터 디자인까지 스스로 진행하며 '로컬 감성'을 입혔다. 브랜드 철학과 감자 생산과정을 꾸준히 콘텐츠로 공유해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했고, 감자 농가와 협력해 지역 생산까지 연계했다. 식재료, 브랜딩, 콘텐츠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로컬 창업 성공 사례다.



폐공장을 감성 공간으로, 칠곡의 '므므흐스 부엉이버거'

경북 칠곡군 왜관을 매원리에 위치한 '므므흐스 부엉이버거'는 버려진 마늘 공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수제버거 가게다. 칠곡에서 자란 감자, 돼지고기, 미나리 등을 사용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제버거'를 만들었고, 이 버거는 인근 미군 부대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다. 더 주목할 점은 공간의 전환이다. 폐공장이던 마늘 저장소를 리모델링해 감각적인 키오스크형 버거 가게로 바꾸었고, 이 공간은 마을을 대표하는 포토존으로 떠올랐다. 연간 8만 명 이상이 찾는 시골 핫플레이스로 성장하면서, 지역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출처: 네이버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어디에서 시작할까?



기관	주요 내용	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기획개발 지원	www.kocca.kr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자금, 창업사관학교 운영	www.mss.go.kr
K-Startup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www.k-startup.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통합 공고)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화 및 협업 프로젝트 지원	www.bizinfo.go.kr
각 지자체	로컬 크리에이터 공모전, 콘텐츠 제작 지원	각 지자체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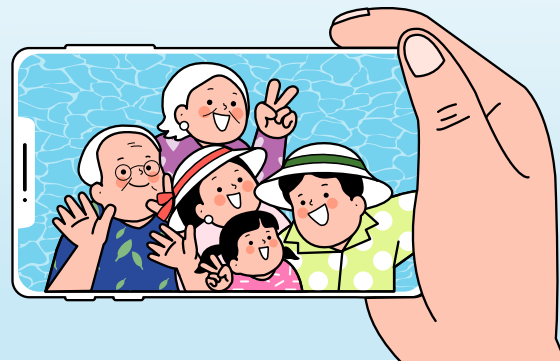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에 지역을 알리는 사람들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이제 지역을 소개하는 '해설자'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이자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보기 좋은 콘텐츠를 넘어, 지역의 사람과 가치, 생생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도전은 단순한 창업이 아니다. 지역을 기록하고, 연결하고, 변화시키는 일이다. 누군가는 영상을 통해 시장 상인의 웃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글로 오래된 마을의 기억을 되살리며, 또 누군가는 음악이나 디자인으로 지역의 감성을 세계에 전한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콘텐츠는 지역을 살리고, 또 다른 청년의 길을 밝힌다. 지금 당신의 카메라가, 펜이, 목소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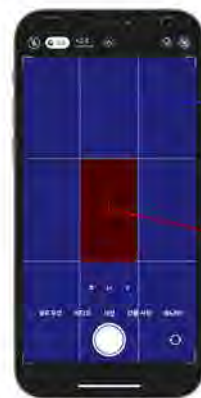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남기는 여행 인생샷 비법

글 박지홍



Q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면 늘 사진 찍는 건 제 몫인데요. 나름 열심히 찍고, 구도도 고민하면서 찍었는데도 “왜 이렇게 다리가 짧게 나왔어?”, “배경이 너무 지저분해”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포토 그래퍼 박지홍(종이)입니다.
유독 더운 올해의 여름, 고되고 긴 시간을 지나 한 줄기 휴식처럼 찾아온 8월입니다. 8월은 특히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무더위를 피해 여행을 떠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딱 좋은 계절이죠. 그리고 그런 완벽한 여행에 빠지면 섭섭한 것이 바로 ‘사진’이구요.
이번 글에서는 특별한 장비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멋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이 참 신기한 건, 몇 년이 지나도 그 순간의 웃음소리, 날씨, 기분까지도 고스란히 떠오르게 해준다는 점이잖아요. 여러분의 여름이 멋진 한 것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가장자리로 갈수록
피사체가 늘어나보이는 왜곡화면의 중앙으로 올수록
피사체가 작아보이고

*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가 멀 때 광각렌즈(1배줌)의 왜곡

실물보다 더 비율이 좋아 보이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렌즈의 비밀

1배줌 광각렌즈에서
인물의 전신사진을 찍을 경우인물의 머리는 5번, 다리는 8번에
위치시키면 광각렌즈의 왜곡을 활용해
인체의 비율을
더 좋아보이게 촬영할 수 있다

총을 잘 쏘려면, 총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진도 그렇습니다. 사진을 잘 찍으려면 스마트폰에 대해 이해해야 상황에 맞게 사진을 더 잘 찍어낼 수 있죠.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기본 카메라로 1배줌 광각렌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광각렌즈의 경우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 조금 더 넓은 장면을 화면에 담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렌즈이지만 카메라와 피사체(모델)와의 거리가 먼 상태에서 촬영할 경우, 화면의 중앙으로 올수록 피사체가 작아 보이고 화면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피사체가 커 보이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촬영하실 때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광각렌즈, 즉 1배줌 렌즈로 촬영하실 때의 이점은 이런 왜곡을 활용하여 인물의 전신사진을 찍을 때 실물보다 더 비율이 좋아보이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름휴가에 가서서 인물의 전신사진을 촬영하실 때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

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배줌 렌즈를 사용한다는 것. 두 번째 인물의 머리는 카메라 화면의 중앙에 두어 머리를 작아 보이게 하는 왜곡을 만들어주고, 인물의 다리는 8번 (왼쪽 사진 참고)에 두어 다리를 늘어나게 보여주는 왜곡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세 번째, 꼭 발끝은 잘리지 않게 카메라 화면의 끝 지점에 발을 두고 촬영해야 합니다. 같은 8번 자리라도 인물의 발끝이 어디 지점까지 오느냐에 따라도 비율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 점까지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1배줌 촬영에서 화면의 끝까지
발끝을 맞춘 사진1배줌 촬영에서 화면의 끝까지
발끝을 맞추지 못했을 때 사진

하지만 여행을 가서 이런 광각렌즈로만 촬영하게 되면 인물이 부각되지 않고 너무 작게 나올 수 있고, 인물이나 보여주고 싶은 배경 이외에도 시선을 빼앗는 대상들이 사진 안에 많이 나오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2배줌 이상 확대’하여 촬영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배줌 이상 확대를 할수록 광각렌즈의 왜곡 현상은 줄어들게 되어 보다 인물을 실제와 비슷한 크기로 촬영할 수가 있게 되고, 3배, 5배 등으로 확대하게 될수록 피사체(인물)와 배경과의 거리가 가까워 보이는 배경 압축 현상이 일어나 보이기 때문에 뒷 배경이 실제보다 더 커보이는 착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배줌으로 촬영한 사진

2배줌으로 멀리 떨어져
촬영한 사진

이런 사진은 특히 여행을 가셨을 때 랜드마크와 함께 활용하기가 참 좋은데요. 2배줌 이상으로 확대를 할 경우 인물(모델)은 같은 자리에서 서있되, 촬영자는 뒤로 멀리 떨어져 스마트폰을 확대해서 촬영하게 되면 모델과 배경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게 촬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물을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해 주목시킬 수 있고 (다만 비율은 조금 더 현실적이게 됩니다) 배경이나 인물 외에 지저분한 요소를 삭제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촬영하는 데 목적이나 주제를 늘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레 주제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어서 우리의 여행사진을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힘을 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대한 간단한 이해만 있어도 간편하게 인생샷을 담아낼 수 있으니 올해 여행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도, 소중한 여행의 한 장면도 사진으로 더 특별하게 남겨 보는 건 어떨까요? 📸

글쓴이 소개 **박지홍** 포토그래퍼 | 「종이의 스마트폰으로 요즘 사진 잘 찍는 법」 저자
홍아필름 대표,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 등 온·오프라인 사진·릴스 강연 다수
인스타그램(종이, @jyong2), 유튜브(종이 TV, @jyong22) 운영

일장기 말소 사건

글 편집실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존 지식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29번 문항

29.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개항기 신문 알아보기

- 모둠별로 제시된 신문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가)

(나)

(다)

(라)

+

+

+

+

<보 기>

- ㄱ. (가) - 정부에서 발행한 순 한문 신문이었어요.
 ㄴ. (나) - 서재필의 주도로 창간되었어요.
 ㄷ. (다) -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이 실렸어요.
 ㄹ. (라) -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되었어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번

(가)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 정부에서 발행한 순 한문 신문입니다. (나)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서재필의 주도로 창간되었어요. (가)와 (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선생의 사진을 실은 신문은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이고,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된 신문은 한성주보이므로 ㄷ과 ㄹ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 지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1936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2면의 고개 숙인 손기정 선수의 모습.

손기정 선수, 조선 청년으로 달리다

1936년 8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1회 하계 올림픽 마라톤 결승선에는 고개 숙인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손기정 선생은 2시간 29분 19초라는 기록으로 금메달을 땀으나, 시상대 위에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감추기 위해 월계수 화분 뒤에 숨긴 모습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실 선생은 출전 당시 일본 국적으로 등록되었으며, 선수 소개에도 'SON Kitei, 일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회 서명록에는 'KOREA'라는 국적을 직접 썼고, 한글로 '손기정(손기정)'이라 서명 하셨습니다. 선생은 끝까지 자신이 조선인임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부상으로 받은 월계수로 가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손기정 선생의 모습. 손기정 선생 왼쪽 남승룡 선생도 3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손기정 선생이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출처: 대한체육회>

한 장의 사진, 하나의 저항

손기정 선생의 시상 장면은 조선 전역에 전해졌고, 이 소식을 보도한 국내 언론은 그 사진에 주목하였습니다. 1936년 8월 13일, 조선중앙일보는 손기정 선생의 사진 속 가슴 부분 일장기를 지운 상태로 게재하였고, 곧 이어 동아일보는 기술적으로 일장기를 선명하게 삭제한 사진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일제 총독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위였으며, 즉각적인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8월 25일 동아일보는 무기 정간 처분을 받았고, 조선중앙일보 또한 자진 휴간에 들어갔습니다. 편집 책임자와 기자들은 체포되어 모진 취조와 고초를 겪어야 했으며, 이후 일부는 언론계에서 퇴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인들이 단행한 이 선택은 단순한 편집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 권력에 맞선 조선인의 정체성과 민족 의식의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지워진 깃발, 지워지지 않은 마음

‘일장기 말소 사건’은 그날의 기사보다 그날의 편집보다 더 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신문 한 장이 ‘나라 없는 백성’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었던 시절, 언론은 침묵 대신 행동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총칼이 아닌 펜과 인화지의 저항이었으며, 민족의 자존을 향한 작지만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손기정 선생이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시상대에 섰던 그날, 대한민국의 언론은 고개를 들고 민족을 대신하여 외쳤습니다.

“그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㉞

현장을 뒤집는 한 줄의 조항, 노동 문제 대리인



사진 출처: MBC '노무사 노무진'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속 노무사 이야기

글 편집실

유령을 보는 공인노무사가 죽은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파격적 설정으로 화제를 모은 MBC 금토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판타지 요소 뒤에 숨겨진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적나라한 노동 현실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노동 문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자.

드라마 속 노무진, 현실을 비추는 거울

극 중 주인공 노무진(정경호 분)은 한때 잘나가던 대기업 인사팀 직원이었다. 그러나 친구의 부추김에 퇴직금을 들고 코인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좌절에 빠진다. 그때 전 직장 선배로부터 “1년 안에 노무사 자격증을 따면 복직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철주야 공부에 몰입한 끝에 결국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다.

사무실을 차렸지만 사건 의뢰는 없고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지자, 그는 처제 나희주(설인아 분)와 처제의 친구 고건우(차학연 분)의 제안으로 산업재해 현장을 기습 방문해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금전적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의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어느 날 산업재해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고, 그 순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영혼들의 한을 풀어준다면 다시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그렇게 되살아난 그는 이후 유령을 보는 능력을 얻게 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해 싸우는 노무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노무진이 이처럼 노동자의 삶에 깊이 공감하게 된 데에는 가족사가 깔려 있다. 그의 형(진신규 분)은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숨졌고, 어머니는 대학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학교의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했다. 이러한 경험은 노무진에게 노동자의 고통을 ‘타인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드라마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형이자 동생, 아들이자 딸인 ‘노동자’일 수 있음을 되새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률 전문가,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문가이다. 이들은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회복을 돕는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비롯해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며, 필요시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까지 맡는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민감한 사건이 증가해 법률적 지식뿐 아니라 심리 상담 능력도 요구된다. 노무사는 노동자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적 전문가이다.



드라마 속 노무진이 파헤친 대표적 노무사권

1.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카트 사고

노무진은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윤재가 무더위 속에서 무거운 카트를 반복 운반하던 중 실신한 사건을 맡는다. 상담과 CCTV 분석을 통해 고온·밀폐된 실내 환경에서 3시간마다 15분 휴게만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노무진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쟁점으로 삼아 산재 신청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법적 보호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사회적으로 환기했다.

2. 종합병원 간호사 자살 사건

노무진은 병원 옥상에서 투신한 간호사의 사망 사건을 맡는다. 표면상 과로사로 보였지만, 의료사고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내부 직원들의 따돌림과 언어폭력이 반복됐던 정황이 드러난다. 노무진은 근무표, 병원 내 보고서, 생전 메시지 등을 확보해 조직적 괴롭힘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만든다. 그는 유족과 함께 병원의 은폐 시도에 맞서 싸우며, 법률 대리를 넘어 노동자의 ‘심리적 권리’까지 지키는 노무사의 역할을 보여준다.

3. 물류창고 화재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최종회에서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8명의 노동자가 숨진 참사를 노무진이 맡는다. 화재 발생 전 제대로 된 휴식이나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명목상 책임자는 소위 ‘바지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노무진은 계약 구조를 역추적해 실소유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허술한 위탁고용 구조와 작업장 안전 관리의 실태를 공론화한다. 그는 재난의 진실을 규명하며 노무사가 사회적 감시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인노무사 제도의 탄생과 현황

공인노무사 시험은 198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 업무는 초기에는 변호사 자격자와 행정사 일부가 수행했다. 2007년 「공인노무사법」이 제정되고, 2011년부터는 별도 자격법에 따른 독립적, 법적 지위를 갖춘 제도로 정비되었다. 이후 노동 관련 법제 강화, 근로자의 권리익식 향상, 플랫폼 노동 확산 등에 따라 노무사의 사회적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업종에서 노무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노무사 시험 응시자 수 또한 증가세다. 과거 연간 수천 명 수준이던 응시자는 2023년 기준 1만 1,646명, 2024년에는 1만 3,521명으로 증가했다. 합격자 수도 2018년 이후 매년 3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응시자와 합격자의 대부분은 2030세대로, 취업난 속 전문직 진입을 위한 대안으로 노무사 시험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 대상 자문(B2B) 위주였던 업무가 최근에는 개인의 임금·해고 사건 의뢰가 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

자의 상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스타트업, 출판사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도 노무사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추세다.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건수는 2021년 1만 5,811건에서 2023년 1만 8,94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96.6%가 노동위 판정에 따라 종결될 만큼 분쟁의 종착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 관련 분쟁이 커질수록 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공인노무사 시험 및 채용 절차

공인노무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며 1차(객관식)·2차(논술형)·3차(면접) 세 단계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 후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록 및 필수 연수를 거쳐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개인 사무소 개업은 물론 기업 인사팀, 노무법인,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되는 5단계 로드맵

1. 응시 자격 확인

국적·학력 제한 없음(단, 3차 면접 전까지 학사 학위 이상 필요).

2. 1차 필기 준비

노동법(I)(근로기준법·산업법 등), 노동법(II)(노조법·노동쟁의조정법 등),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택1)

3. 2차 필기 준비

노동법(전 범위),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 또는 노동경제학 또는 민사소송법 중 택1

4. 3차 면접 준비

직업윤리·전문지식 응용능력·사례판단 및 논리성

5. 협회 등록·실무연수

합격자 발표 후 한국공인노무사회 등록, 6개월 내의 실무수습·연수

※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및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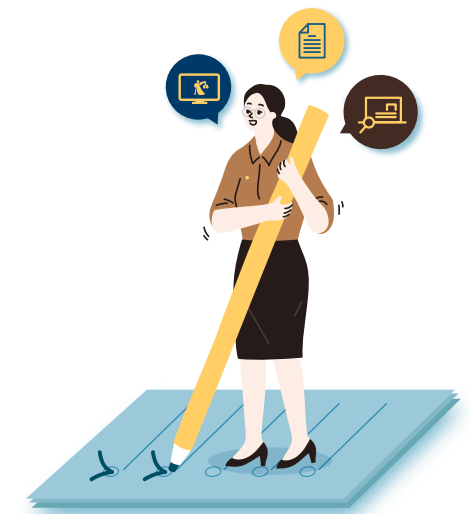


노무사의 하루, 노동자의 삶과 함께하다

노무사의 일과는 상담 의뢰와 함께 시작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부터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아르바이트생, 산업재해 피해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의료 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분석한다. 사건 접수 후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접수하거나 근로감독관과의 협의를 진행한다. 때로는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도 한다. 노무사의 하루는 드라마에서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은 크다.

노동과 삶을 지키는 노무사, 사회적 의미

공인노무사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존재가 아니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 자체를 보호하고,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법과 현장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감을 유지하며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는 공인노무사. 드라마 속 노무진처럼 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노무사
임금 수준 및
직업 만족도

〈자료: 워크넷,
노무사(2021)〉



노무사에 대해 더
살펴보고 싶다면?

노무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는 큐넷
직업백과를 참고하세요.





지금 주머니와 지갑에 지폐 혹은 동전이 들어있는가?

언제부터인가 지폐를 보는 건 힘들고 동전을 만나기는 더 어려워졌다. 가끔 10원짜리 동전이 서랍에서 발견되면 놀라울 정도다. 이제 지폐와 동전의 쓰임은 명절 때나 되어서야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정도가 됐다. 아이들은 어떨까? 예전에는 너무 많은 용돈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대신 저금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나머지 돈은 손에 꼭 쥐고 가게로 달려가서 과자를 사먹기도 했는데 이 역시 달라졌다.

아이들은 용돈을 쥐고 편의점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자신의 토스머니에 충전한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충전한 돈의 소비처는 간식을 사먹기도 하지만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쓰이기도 한다. 어차피 현금을 머니로 바꿔야 하기에 처음부터 부모들에게 현금을 맡기고 충전을 요청하기도 한다. 세상이 달라졌다. 어렸을 적 지갑에 두툼하게 돈이 들어있는 걸 부자라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아이들은 모니터 속 전자지갑의 0이라는 숫자가 몇 개인가가 더 중요해졌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건 이런 '돈'을 관리하는 곳이다. 중심에는 오래도록 우리의 걸을 지켜온 은행과 같은 '레거시 금융'이 있고, 새롭게 등장해 세상을 바꾸고 있는 '빅테크 금융'이 있다.

빅테크 금융 - 핀테크? 테크핀이다.

금융의 업무에서 기술이 부수적이었다면 이제는 기술이 먼저고 금융은 나중인 세상이 되었다. 이를 테크핀이라 부른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네, 카, 토' 네이버, 카카오, 토스다. 이 셋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성장해왔고 같은 곳을 향해 달리고 있다.

네이버의 시작은 검색을 기반으로 한 '포털'이다. 인터넷의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포털' 서비스를 하며 여기에 광고가 수익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씩 새로운 서비스가 이어졌다. 이제는 네이버 하면 '네이버 지도', '네이버 쇼핑', '네이버 웹툰'과 '웹 소셜'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생각난다. 네이버는 일상 플랫폼 기업이 됐다. 여기에 슬쩍 '결제'를 시작으로 '금융' 서비스가 이어졌다.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네이버페이로 결제해 받는 포인트가 웬만한 신용카드를 썼을 때의 포인트보다 높다. 만약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후불 결제가 신용카드만큼의 한도를 준다면 파급력은 더 커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카카오도 비슷하다.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된 후 검색의 양대산맥인 다음을 인수했었고 카카오 쇼핑, 카카오 지도, 카카오 택시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소비에는 '카카오페이'가 중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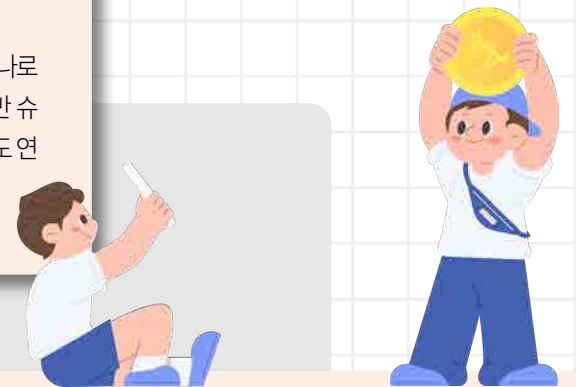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생활 밀착형 플랫폼에서 금융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토스는 조금 다르다. 간편 송금이 라는 작지만 유용한 서비스로 시작해 토스뱅크, 토스증권으로 확장했다. 여기에 자산관리와 보험금 대신 청구하기 등의 금융 서비스를 넘어 만보계, 쇼핑과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이 하나의 앱에 더해지기 시작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상 플랫폼에 금융을 더했다면 토스는 금융에 일상 플랫폼을 더하고 있다.



레거시 금융의 반격 - 슈퍼앱과 플랫폼 금융

이들의 약진에 위기인 건 기존의 금융이다. 지금에야 중장년층 이상의 핵심 금융고객이 있지만 중학생 이하의 알파 세대들이 사회 중심이 되는 세상에도 그 위치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단도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플러스 멤버십 회원이 넷플릭스 구독권에서 웹툰, 웹소설 이용권까지 제공하는 것에 비해 약하다. 그래서 금융도 달라졌다.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까지 '알뜰폰' 서비스에 뛰어들었고 신한은행은 배달 플랫폼 '땡겨요'를 운영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슈퍼앱들을 공개하고 있다. 금융기업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슈퍼앱에는 쇼핑은 물론 도서관 대출과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도 연동되고 있다.



빅테크 금융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혜택을 보는 건 금융소비자들이다. 따라서 수많은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빅테크 시대의 금융사들이 원하는 건 더 많고 더 자세한 개개인들의 소비 데이터다. 결국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지출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고객 맞춤형 PB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투자에서 지출까지 금융의 모든 분야는 더 쉬워지게 된다. 그러니 주의하자. 이에 따라 개인들이 가져야 하는 금융의 이해와 돈에 대한 금전 감각은 무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금융사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왜 이런 서비스들이 나왔는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해보자. ㉞

글쓴이 소개 **이임복**

현)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인터렉티브박스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MWC 모더레이터,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유튜브 일상 IT 운영자

기억을 품은 길,
평화를 향한 발걸음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의정부·남양주 평화로드

광복 80주년을 맞은 여름,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따라 길을 나섰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만큼, 그날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들의 결의와 희생을 더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 경기도 남양주와 의정부를 잇는 길 위에서 그 결의의 자취를 따라 걸어보았다.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기억'이 피어나고, '책임'이 이어지며, '평화'가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었다.



Re new 뜻있는 여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억하다

남양주 'REMEMBER 1910'

첫 번째 목적지는 남양주 금곡동에 위치한 'REMEMBER 1910'이다. 나라를 잃은 고종 황제와 백성들의 한이 서린 남양주 홍유릉 앞에 자리한 이곳은 대한독립을 위해 토지 등 전 재산(2021년 기준 2조 원 이상)을 희사한 이석영 선생과 6형제의 애국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역사적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현대적인 외관이 인상적이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이석영 선생과 그 형제들이 남긴 흔적이 깊고 선명하게 다가온다. 어두운 지하 전시실에서 조명 아래 환하게 빛나는 조형물 '빛을 잇는 손' 앞에 서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맞잡은 손들이 마치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는 듯했다. 청소년들이 검사와 변호사가 되어 친일파를 단죄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역사법정이 있고, 바로 옆으로 역사감옥으로 이어진다. 서대문형무소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뤼순 감옥의 무거운 공기가 온몸을 압도했다. 나라 잃은 슬픔과 독립을 향한 갈망이 묵직한 침묵 속에서 전해졌다. 지상으로 올라와 이석영광장에 서자 눈부신 햇살과 싱그러운 나무 그늘 아래 여섯 개의 돌이 보였다. 이석영 선생과 형제들이 결의를 다지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공간은 평화롭게 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과 어우러지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한다.

책임의 품격을 간직한 곳

남양주 '궁집'

REMEMBER 1910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궁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고요한 한옥마을 같은 이곳은 마치 다른 시대로 들어선 듯 시간마저 느리게 흐른다. 마을 입구 작은 연못 앞에 자리한 궁집은 조선 영조 임금이 능성위 구민화에 시집 가는 막내딸 화길옹주를 위해 지어준 집으로, 나라에서 대목장과 재료를 보내어 지었기 때문에 '궁집'이라 불린다. 현재 국가민속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화길옹주는 혼인 후부터 별세할 때까지 17년간 이곳에서 살았다고 전해진다. 세월이 흘렀어도 기품 있게 유지된 'ㄷ'자 형태의 안채와 'ㄱ'자 형태의 사랑채는 옹주의 단정한 삶을 짐작하게 한다. 도시개발로 사라져가는 한옥에 안타까움을 느낀 예술가故 권옥연, 이병복 부부가 1970년대부터 궁집과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철거된 전통 한옥들을 이곳으로 옮겨 지으면서 현재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궁집 외에도 용인집, 군산집, 다실, 초가 등 9채의 한옥이 시내가 흐르는 마을 옛길을 따라 자리 잡고 있다. 마을 곳곳을 천천히 걸으며 듣는 바람소리와 새소리는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게 한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다.

전장을 평화로 되살린 곳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고즈넉한 궁집을 뒤로하고, 다음 여정지인 의정부로 향했다. 도착한 역전근린공원은 미군기지였던 공간을 시민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되살린 장소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마주한 안중근 의사 동상은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순국 직전 동생과의 면회를 담은 사진과 그의 생애를 따라 새긴 문구를 읽으며 숙연한 마음이 든다. 안중근 의사 동상 오른쪽 옆으로는 평화의 소녀상이 조용하지만 굳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조금 더 걸어가자 베를린 장벽이 나타났다. 2014년 독일 정부와 베를린시가 무상 기증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5조각'이 세워져 있다. 과거 냉전의 상징이었던 이 장벽은 지금 이곳에서는 평화와 통일의 희망으로 우뚝 서 있다. 분수와 벤치, 나무 그늘 아래서 편하게 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곳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된 공간임을 보여준다. 광복 80주년, 짧은 하루의 여행이었지만, 오랜 여운을 남겼다.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의 결의, 조용히 책임을 다한 이들의 삶, 그리고 전쟁의 흔적 위에 피어난 평화.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발걸음마다 느껴진 이 진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 ☎

Tip. 여정별 정보

REMEMBER 1910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46(홍유릉 앞)
 운영 시간 10:00~22:00
 휴무 1월 1일·설·추석·매월 넷째 주 월요일 휴관, 무료 관람

남양주 궁집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9(평내동)
 운영 시간 화~토 10:00~17:00
 휴무 일·월 휴관, 무료 관람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22-27 일원(평화로 527)





소양강이 흘러가듯, 강원 제대군인의 새로운 길을 열다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그 지형만큼이나 오랜 시간 군부대가 자리해 온 이곳에서, 또 하나의 든든한 전우가 되어주는 공간이 있다. 2019년 문을 연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섬세한 상담으로, 수많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실질적 취업 연계와 따뜻한 정서적 지지까지 아우르며, 제대군인의 내일에 빛이 되어주는 강원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19년 7월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사무소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원서부보호지청 소속으로 직제를 변경하였고, 강원 지역 제대군인 지원의 거점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개소 당시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했으나, 제대군인분들의 방문 편의를 위하여 2023년 8월 춘천 B&I 지식산업센터 9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소양강로에 자리 잡고 있어 아름다운 소양강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센터 내에는 2개의 상담실과 AI 모의면접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면접 연습과 진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장과 회의실이 구비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선임 상담사 2명, 전문 상담사 3명, 일반 상담사

2명, 군경력 상담사 1명, 행정직원 2명 등 총 11명이 근무 중이며, 취업교육팀(5명)과 기업협력팀(3명)으로 나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만여 명의 제대군인께서 회원으로 등록해 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Q.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센터는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교육팀은 군부대 순회상담, 워크숍, 위탁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1 전문 상담을 통해 각 회원의 경력, 희망 직종,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한 진로 탐색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입사지원서 클리닉, 모의면접, 전직지

원금 및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전직 전반을 밀도 있게 돕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협력팀**은 태백시 등 왕복 400km가 넘는 원거리 지역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하여 다양한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두드림(Do Dream) 날(Day)' 행사도 주기적으로 개최되어, 제대군인과 기업 간의 연결을 돕고 있습니다.

Q.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만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A. 강원센터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군부대가 밀집해 있어 타 센터에 비해 신규 제대군인 유입이 많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초기 상담 건수도 많은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들이 각 회원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상담을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악 지형과 넓은 지역적 범위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는 센터 방문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매월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동 지역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을 올해 11월 강릉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취업 기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으로는 워크숍 및 순회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MBTI연구소의 온라인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 결과는 자기 이해와 진로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며, 상담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Q.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창업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한 회원은 코로나 시기 전역 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센터를 찾았고, 상담을 통해 특수경비 분야로의 전직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코칭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업시설 특수경비직에 취업하였으며, 이후에는 공공기관 경비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센터 멘토로 활동하며 후배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또 다른 회원은 헬스 트레이너를 꿈꾸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통해 퍼스널트레이너 1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전직지원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은 뒤 피트니스센터 창업에까지 성공하였습니다.

Q.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는 제대군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A.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전직지원금입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전문 상담사가 배정되어, 경력·희망·직종·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상담이 이뤄지며, 맞춤형 채용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교육비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미취업·창업 상태이거나 기간제 근로 중인 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자부담 20%) 한도로 지원합니다.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상태인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연금 비대상자'인 제대군인에게 가장 6개월간 매월 중기복무자 58만 원, 장기복무자 8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올해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올해 강원센터는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채용 연계 강화'를 역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각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조건을 파악하고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직 과정에서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힐링 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산림조합과 협력한 도마 만들기 목공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Q.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제대군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군 경력은 사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산입니다.

진로를 새롭게 탐색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 길에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65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춘천B&I지식산업센터 915호

운영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문의 1666-9279(군인친구)

“강원 전역 관할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남궁용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장

저는 지난 4월 7일자로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원동부보훈지청 복지팀장,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팀장 등 주로 강원 지역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보훈가족을 위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강원 전역을 관할하는 현재의 센터장 업무에 이전의 영동·영서 지역 근무 경험 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임 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 등과 협력하여 제대군인들이 강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 군부대가 밀집해 있어 제대군인 회원 수는 많은 반면, 산업 구조상 취업 여건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군에서 헌신하신 제대군인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N T E R V I E W

책장을 넘기며 떠나는 마음의 여행 여름휴가 맞이 추천 도서 3선



여행의 이유

김영하 | 북복서가

여행이라는 행위를 통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사유하는 깊이 있는 산문 집이다. 여행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자기 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섬세한 문장으로 풀어내며, 독자들에게 여행의 본질적인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게 만든다.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 청미래

여행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세계와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사유의 과정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풍경, 예술, 일상 등 다양한 시선을 통해 여행의 본질과 의미를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일상의 틀을 벗어나 삶의 태도와 관점을 변화시키는 여행의 힘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산책

다니구치 지로 | 이숲

일상에서 발견하는 여행의 기쁨을 담은 만화 작품이다. 평범한 거리와 풍경, 작은 만남이 주는 위로와 여유가 잔잔하게 그려진다. 짧은 여행이나 휴식 시간에 가볍게 펼쳐 읽기 좋으며,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과 사색의 순간을 선사한다.

한 달에 한 가지, 장바구니 하나로 시작하는 환경 보호!

장바구니 한 개를 꾸준히 사용하면 1인당 연간 비닐봉투 300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CO₂ 4.5kg과 플라스틱 1.5kg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죠.

다만 진정한 환경 친화적 효과를 얻으려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PP 부직포 장바구니는 최소 11회 이상, 면 소재 장바구니는 50회 이상

재사용해야 비닐봉투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작은 실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지구의 숨을 한 번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독자퀴즈

QUIZ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문가이다. 최근 드라마에서 이 직업을 가진 주인공의 활약을 다루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28~31P 미디어로그 참고)

- ① 노무사 ② 법무사
③ 세무사 ④ 변리사

※ 8월 20일(수)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라: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5년 7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손경섭(인천 연수) 이진호(서울 강서)
이희성(강원 동해) 최종명(경기 안양)
황상호(경남 김해)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7월호 정답: ② 무도실무관

2025년 8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보훈

이운산 대한민국 육군 중령



1917. 11. 01.~1950. 08. 26.

홍천에서 군위까지, 적의 발을 묶고 승리의 시간을 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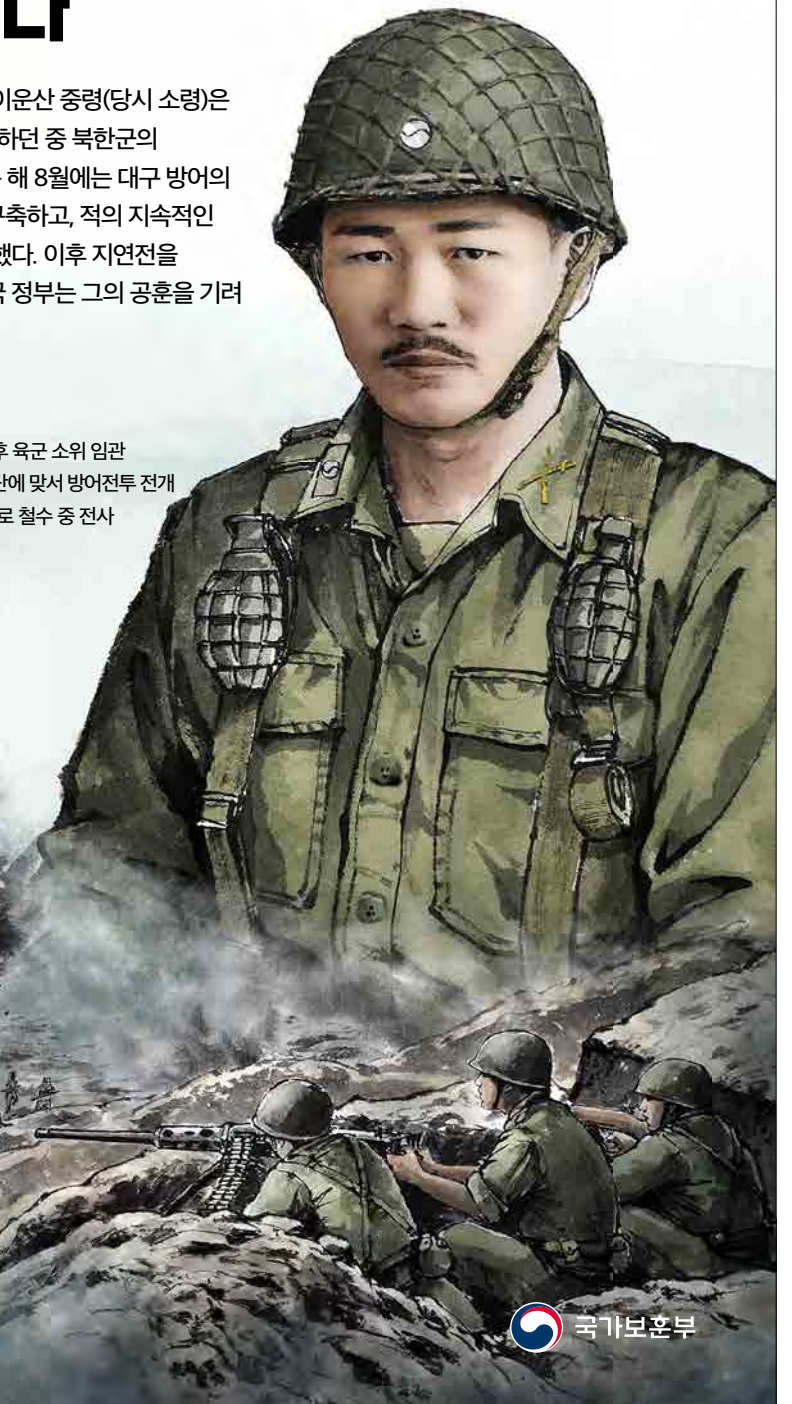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 국군 제6사단 2연대 3대대장이던 이운산 중령(당시 소령)은 강원도 인제군 현리 북쪽에서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맞서 치열한 방어·지연전을 전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대구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인 무명고지와 175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지속적인 공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하며 국군 반격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연전을 펼치면서 후방으로 철수하던 중 전사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이운산 중령의 발자취

1948년 10월 12일 육군사관학교 제7기 특별반 장교 후보생 수료 후 육군 소위 임관

1950년 7월 충주·수안보·문경·함창지역에서 북한군 제1사단, 12사단에 맞서 방어전투 전개

1950년 8월 26일 군위군 우보에서 북한군 제8사단 격퇴 후 후방으로 철수 중 전사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